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859-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음 2월 14일) 제15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우리도 출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면담이 불발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비례 후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내 출신 인사들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도, 29개 선정 중점관리

전북도가 도내 출신 인사들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21일 전북도는 정부위원회 중 도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속적으로 도내 출신인사의 참여 노력이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해 중점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2015년 6월기준 549개의 정부위원회 중 국가예산 확보, 현안 해결 등 도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29개의 위원회를 실국장 책임하에 자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9개 위원회는 소속별로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5개, 국민안전처 소속 1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1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1개, 산업통상자원부 2개, 보건복지부 5개, 환경부 2개, 여성가족부 1개 국토교통부 6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29개의 위원회 중 도내 출신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11개 21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9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672명 중 3.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중 특히 2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2개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정부위원회 도내 출신 참여를 위한 준비단계 ▲위원교체 이전 단계 ▲위원교체 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 정부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준비단계에서 각 위원회별 후보자를 도내 전문가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도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3명 이상씩 ‘후보자 POOL’을 구성하고 위원교체 이전 단계에서 이미 구성된 ‘후보자 POOL’상의 후보자들의 역량을 중앙부처에 적극 소개·홍보 한다는 전략이다.

이후 위원교체 3개월 전부터 위원교체를 대비해 각 중앙부처 실국장 및 차관에게 적극적인 위원 위촉을 건의해 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위원회 참여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정 현안 정책동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도 의견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달 안으로 후보자 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더민주, 언론 자유 보장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6대 미디어 공약과 2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6대 미디어 공약은 ▲언론 자유와 독립 회복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토대 마련 ▲지역발흥 활성화 ▲지역신문 지원 ▲공정한 미디어 시장 육성 ▲남북 미디어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2대 추진과제에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인터넷실명제 관련 제도 전면 개선 ▲시민참여 방송 지원 확대 ▲지역신문 상시 지원 근거 마련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 ▲남북 미디어 교류협력 창구 마련 등 구체적인 공약이 담겼다. /이성주 기자

4.13 총선 D-22

더민주-국민의당

도내 ‘제1당’ 주도권 경쟁

4·13 총선 후보 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북 선거구에도 각 당 후보들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도내 선거구에 대한 후보들을 모두 발표한 반면 국민의당은 전주읍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최종 후보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경선 마감시간이 21일 오후 10시여서 이르면 22일 오전이면 도내 모든 선거구 대결 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야권 텃밭인 전북에서 주도권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당 대 당 선거전으로 총선 열기의 막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관전 포인트는 이날 현재까지 야권의 텃밭인 전북지역 선거구에서 ‘괴연’ 어떤 당이 1당이

야당 간 지지도 격차 적어 인물 위주 대결 될 가능성

내주 초 대결구도 확정

후보경쟁력이 결과 좌우

되느냐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인물 중량감으로서는 다소 우위에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조직력에서 앞선 더민주 후보를 추격전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를 상쇄할 것이라 분석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두 야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결정되면 총선이 인물 대결로

흐를 가능성 때문에 총선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상황에서 더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민심을 확인한 현 상황에 대한 내상이 민란스럽다.

일부 의원 등 지역 선거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놓고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역민들에게 형성돼 당에 대한 거부감도 시급히 넘어야 할 벽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거물의 귀환과 더민주에서 탈당한 전직 정치인들의 대 더민주 결사항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보여 당 지지 여론 변화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며

서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이 높아서 우세지역이 점차저는 곳도 많아 결국 지역민을 위한 사립이 정치인으로서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후보 공천이 늦어져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도 모를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 다 보니 결국 각 후보자들의 면면에 따라 당 지지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가 관계자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역구 우열 분위기는 경선 결과와 향후 선거전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후보 각각의 경쟁력이 곧 이번 총선의 막판 승부수로 따워질 ‘신의 한 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정부, 올해까지 온누리상품권 1조 판매

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발표... 유커 유입·청년상인 육성도

정부가 올해까지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에는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편중된 판매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수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이 상품권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백만루터 캠페인 등을 전개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제정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이 복지단체 등에 상품권으로 기부하는 ‘온누리상품권 희망 나눔사업’ 등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품권 구입 구매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20개)에서 상품권 구매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유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상품권 미가맹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확대(2만개)하고, 부정유통 적발 점포의 가맹점 취소 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투어상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 판매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지정, 전통시장으로 방문객들을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의 방문화와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도 기존 12곳에서 40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반 상품 아이디어 등을 갖춘 청년상인을 업선해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성주 기자

새봄맛이를 위한 건강한 농특산물 구입은 **다뽕미인쇼핑몰**에서~

다뽕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 ◆ 구매고객 특별혜택
 - 모든 상품 우체국 무료배송
 - 회원가입 후 구매시 2% 적립금 지급
- ◆ 화요특가안내
 -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특가를 진행합니다.
 -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진행하며 수요일날 일괄발송 합니다.
- ◆ 고객센터전화 / 홈페이지
 - 080-535-4345(무료) / 063-532-4345 <http://www.danpoongmall.com>
 - 앱스토어에서 다뽕미인쇼핑몰을 검색하세요~!(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가능)



정음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TEL: 539-6261~3